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性性的 재개념화 커리큘럼 모색 : N변방 시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몸’과 ‘성’을 새롭게 이야기하다*

이주아(이화여자대학교/강사)

joojooah@hanmail.net

한글 초록

연구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N변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청소년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성교육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적 성교육은 여성주의 성윤리 및 해외의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일부 받아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단,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및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배제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일부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양성에 의한 결혼 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전순결주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성관계 윤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피임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적 성교육과 대치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먼저 공적 성교육,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성교육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9170)

소년 성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욕주의나 혼전순결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을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몸과 성 개념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다양한 여성신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원론적 성과 몸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전적 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전 지구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2)타인과의 관계 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한 바람 보내기 3)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로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청소년 성교육, 통전적 성, 여성신학 성윤리, 상호연대적 성, 생태적 영성

I. 들어가는 말

N번방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의 주범들과 검거된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비교적 어린 나이라는 점, 유사 사건에서 만 12세 소년이 가해자로 밝혀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가 청소년 세대에서 정점을 찍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조유미, 2020).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과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층에서 일어나는 여러 성폭력 기사만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기존 학교 성교육 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치료하

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과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공적 성교육은 두 가지 면에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 기존 한국 사회 성윤리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청소년 성문제의 현상학적 문제 해결에 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공적 성교육은 생물학적 이론, 예방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방법론 또한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보수적·전통적 성윤리를 주장하는 대다수의 개신교와도 강하게 과열음을 빚고 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문제에 치중하는 현 한국 공적 성교육도, 보수적·전통적 개신교의 금욕주의적 성교육도, 여성주의의 성인지 감수성 위주의 성교육도 청소년 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몸과 성의 개념을 통해 현대 청소년 성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수적·전통적 개신교의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 성교육을 살펴봄에 각기 중점을 두는 부분과 성교육 방법론 등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신학 및 생태여성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몸과 성에 대한 시각을 재개념화하여 현재 한국 사회 청소년 성교육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커리큘럼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성윤리와 청소년 성교육 현황

1. 청소년 성문제와 성교육 현황

한국의 공적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도입된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표준안을 기본으로 성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 이

해와 성문화 및 성윤리 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변우진, 2017). 그러나 학교 성교육표준안 내용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학교 성교육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내용: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여성의 성을 임신 및 출산(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 2)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는 내용, 3)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 등(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가장 문제시된 몇 가지는 삭제되었으나, 성교육표준안이 담고 있는 문화적 전제들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 성교육은 교육 환경에 따라 상당 부분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명선, 2012).

학교 성교육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9년 기준 전국 고정형 47개소, 이동형 11개소로 운영 중이며 1)성희롱 예방 2)성매매 예방 3)성폭력 예방 4)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성인지 감수성과 피임법 등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청소년 성행위 조장’, ‘동성애 조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각종 인권조례 등을 폐기시키고,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혼전순결 강조 등을 교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한국을 망치고 청소년을 타락시킬 것”이라며 현재 시도되고 있는 인권조례의 차별금지법 등도 반대하고 있다(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2019). 이와 같은 입장의 단체들은 자체적인 성교육 단체들을 설립하고 성교육 강사들을 배출하면서 전국의 학교와 단체들을 돌며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이은혜, 2019).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 등의 확산을 저지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임보혁, 2020).

그런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피임법이나 성병 예방 등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의 원인과도 상통한다. 현장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 성문화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단, 성병 등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가르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 성폭력 문제 개입, 학교 성교육, 체험형 성교육 등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수요에 대한 응답들은 현상학적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지만, 원인 근절로는 이어지기 힘든 한계점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청소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 및 운영 방법의 구조적 문제들까지 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들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잘 나타내 준다(이명선, 2012).

2. 전통적 성윤리와 청소년 성교육

1)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 성윤리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의 성에 대한 역사적 지향은 크게 금욕주의와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다. 금욕주의는 인간에 대한 그리스로마 철학의 이원론적 이해에서 생겨난 성과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적 성격을 영혼으로 설명하며 육체적 실존과 성을 극히 경시하는 방향성을 가졌다(Grenz, 2003, 49). 독신을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영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인간의 성을 타락을 통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성을 죄의 영역과 연결시키며 성행위가 결혼 관계 안에서 행해질 때라도 이는 욕정, 즉 죄로 더럽혀진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성의 타락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 성윤리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재생산을 담당하는 성의 기능적 면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 제도 안에서 성행위와 재생산을 포함하고자 하는 신학적 이해 역시 존재한다. 육체의 악함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초대 교회 신학자들은 성육신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혼을 재생산(출산)과 함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보며, 결혼 관계 안에서의 도덕적 성을 이야기하였다. 중세 이후에는 성육을 위한 구제책과 재생산을 위한 필요 기능으로서의 결혼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소명으로 보는 관점도 생겨나게 되었다(Grenz, 2003, 16-25). 이처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기록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가톨릭 역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피임, 혼전 성관계나 동거, 자위행위, 혼외 성관계, 동성애적 행위를 모두 죄로 규정하였다(Percy, 2013, 109-134).

1990년대 이후 활발해진 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인간의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몸을 죄악시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의 선회를 보였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性性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놓치고, 생식 기능에 국한되는 이해 속에서 본래적인 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상실했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구완서, 2000; Crabb, 2014, 22). 이는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공통되게 보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며 인격적 성과 몸의 개념이 성서적 개념이라는 시각으로 성과 몸의 긍정성을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관점이다. 그런데 성관계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즉 보수적·전통적 개신교의 성윤리는 양성만을 인정하면서 이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지지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인정하며,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행위 및 정체성으로 표출해야 하고, 결혼 관계 이외의 성관계에서는 금욕주의와 혼전순결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가진다.

2) 청소년 성교육

성을 결혼과 재생산 안에서 보면서 성적 행동은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사랑으로 보는 청교도 신학의 관점을 상당부분 이어받고 있는(Ryken, 1978; Grenz, 2003에서 재인용) 전통 성윤리가 1960년대 성 혁명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측에서는 청소년 성교육 반대 운동과 이를 통한 전통적 가족 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하였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연합/기독교 십자군 중심의 성교육 반대운동-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운동이 이어받은-의 기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타락시키고, 기독교 윤리를 거부하게 하는 거대한 공산주의적 음모'라는 것이었다(Bruess & Greenberg, 2011, 105).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청소년 성교육이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권혁위, 2020).

이러한 성윤리를 기본으로 청소년 성교육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 교육 형태인 강의법을 통하여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관계의 중요성과 필요성, 성과 몸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성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결혼, 생명, 남자와 여자, 윤리, 도덕, 사회, 가족 등 모든 영역 안에서 중요한 핵심을 구성한다는 것이다(김지연, 2020a, 46). 다양한 성적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성, 중성, 양성동체 등 생물학적 성 다양성이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김지연, 2020b, 53-55), 특히 동성애 등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신앙의 힘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사례 제시가 같이 이루어진다. 남녀의 성차에 집중하여 여러 의학적 소견들을 제시하면서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구현하는 것이 성서적 진리라는 점을 강조한다(김지연, 2020b, 42; 2020c, 203-222). 이때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구원에 있어서는 평등하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기능적 위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자 참여 교육으로 음란물 예방교육 및 데이트 가이드라인 및 혼전순결 서약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란물 예방교육은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 곳곳에 성서 구절을 붙이고 음란을 조장하는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고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고 밤늦게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행위 규제 위주의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김지연, 2020c, 181-185) 혼전 순결을 강조하면서 불키스까지만 허용하고 입술 키스는 안 된다는 등의 '데이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순결서약식을 중요한 커리큘럼의 하나로 삼는다(이진아, 2019, 62, 155). 성서 말씀을 외우는 게임을 하고 토론 및 강의가 이어진 후 학습자가 참여하는 활동- 빨강과 파랑색의 습자지를 붙여서 떼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물어 적서서 붙인 다음 떼어내는 과정에서 찢어지는 습자지를 사람의 몸과 성에 비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몸의 바운더리와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변화해가는 가족 형태, 비혼과 늦어지는 결혼 연령, 점점 빨라지는 성행위 시점 및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대두 등을 생각할 때, 이러한 성윤리와 성교육이 현재의 삶의 방식에 적합한가 하는 물음이 대두된다. 물론 연구자 역시 이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는 보수적 경향 역시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교육이 부재한 시점에서 행위 위주의 성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 및 청년들로 하여금 죄책감만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정혜민, 2019, 151).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강조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중적 성윤리-남성의 성욕은 정당하며 여성은 이에 대해 방어하고 조심해야 하는 소극적 성이라는-가 기능하기 쉽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생산하는 여성에 대한 억압 및 타자화를 벗어나기 힘들다(장필화, 1989). 또한 소위

‘정상적 성’ 패러다임에 속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3. 여성주의 성윤리와 청소년 성교육

1) 여성주의 성윤리

여성주의 성윤리는 중점에 따라 몇 가지 갈래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 개념과 생물학적 성이 성적 정체성이나 인간의 본성을 결정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체이다. 1960년대 후반 시작된 여성들은 ‘성해방’ 운동을 주도하였다(Ruether, 1983, 42). 이들은 정신과 남성을 동일시하고 반면 여성의 성과 몸을 악한 것으로 보는 서구의 전통적 개신교의 관념이 부정적 유혹자 및 순결한-성과 무관한- 여성의 이분화를 만들면서 남성을 성의 주체로, 여성을 성의 객체로 만들었다고 보았다(Bordo, 2003, 12~62). 이러한 관념이 성적 주체자로서의 남성과 그에 종속되어야 하는 여성의 성과 몸이라는 사회의 권력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여성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사적 의미가 정치적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여성이 성적 주체이자 여성도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음을 공론화하였다(Hooks, 2000, 86~87). 여성주의자들은 성 혁명의 개념을 여성의 성적·정치적·사회적 행위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구축할 필요성을 느꼈고,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치적 중요성’을 내세웠다(이나영, 2009). 파이어스톤(Firestone, 2016)은 시대마다 성윤리가 가변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성애의 관계는 성계급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남성의 공격성과 지배의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관계에서 여성 종속/ 남성 지배의 규범을 만들며 이것이 다른 상황에서까지 기본 규범이 된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은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차에 의한 성적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자 제도 담론의 결과라고 보며 ‘생물학적 여성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성성을 부여받는다’는 본질주의에 도전했다. 이러한 본질론적 사고는 여성을 사회 통제의 대상으로 두는데 이용되고, 여성과 남성의 성적 행위나 성적 정체성의 차이를 본래부터 주어진 것으로 여기게 하면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성적 정체성은 따라서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향한다. 이러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생물학적 성차를 고정된 성역할로 이해하면서 이를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으로 문화화해온 모든 제도 안의 성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청소년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가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영향을 미친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양한 성적 정체성의 인정이다. 이는 공식 성교육과 해외 청소년 교육에서도 주가 되는 영역이다. 우선 여성주의 성교육은 성 정치학의 복잡한 양상들을 공론화 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기 몸의 결정권과 존중권의 의미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김현미, 1997).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이해가 가부장적 권력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하며,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 통제는 이중 규범으로, 여성에게 보다 억압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의 성행위는 공식적 체계인 결혼 관계 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적 체계는 남성들에게만 주로 해당될 뿐, 여성의 성은 공식적 체계 안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은 모두 성적 주체가 되어야 하며, 성적 행위의 행사에 있어 특히 여성이 스스로를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성’이 아니라 본인이 주체가 되어 성적 행위를 결정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장필화, 1989).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1)타인의 자

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2)자신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3)성적 방종과는 다르고 4)책임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현아 외 4인, 2019, 114-115).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성적 자기결정권 지수 테스트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이에 근거한 성의식과 성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성역할 이론이 생물학적인 차이를 토대로 특정한 성의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편견이나 차별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불균형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까지 갖춘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의 성교육이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하고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주로 집중하면서 평등을 말하는 것은 ‘위장된 평등’이라고 보고(김현미, 1997),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이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학교 및 사회 전반 영역에서의 성차별적 언어와 행동양식,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토론, 성중립 교구 선택, 다양한 롤모델의 제시, 익숙한 것에 대한 질문, 미디어 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조현아 외 4인, 2019, 83-97). 또한 간성, 무성 등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 역시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 성교육은 생물학적 결정론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 개념을 가지고 성 담론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추적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가부장제 이성애주의에 담긴 여성 억압에 대한 부분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대부분의 성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초차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노출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니(이명선, 2012), 이러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연구자는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성의 해방과 평등 담론이 가져온 역기능에 일부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주의에서 말하는 여성의 성적 해방과 성적 자기 결정권은 1960년대에는 나름 의미가 있는 사회적 담론이었지만, 성 해방 운동이 통제력을 상실한 과잉성애화와 실험적 성의 소비에 따른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임희숙, 2017). 인격적 성과 몸 개념에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성 행동이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여성신학에서 조명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이나 영성과 연결되는 성과 몸 개념 등까지 확장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 역시 지닌다.

4. 해외 청소년 성교육

해외 청소년 성교육은 생물학적인 지식 뿐 아니라 지적·감정적·신체적·사회적 측면의 성성을 가르치는 포괄적 성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하는데, 성행동에 수반되는 문제점 예방을 위한 성교육 부분이 강화되어있는 한국과는 달리 가치 및 인권, 폭력과 안전, 젠더 이해, 관계성, 의사소통,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성과 몸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을 기본으로 하되 인권 및 관계 중심의 성으로 주제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기술은 물론 문화 및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탐색과 상호작용 등까지 관심한다. 유럽 및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개입과 참여를 존중하지만, 학부모의 결정권-자녀에 대한 성교육 배제-은 생리학적이고 해부학적 성지식을 배우는 것은 제외된다. 즉, 생물학적 지식인 성기, 성행위에서의 임신과 재생산, 성병 예방, 피임법 등은 필수적인 교육의 내용이 된다(김지학, 2018).

영국과 벨기에는 성에 관련된 관계성 위주로, 독일은 생물학적 지식과 피임법에 대한 학습, 감정과 인간관계, 가치와 윤리관 등 성교육이 삶의 다

양한 면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독일은 성에 대해 자연스럽고 즐거운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로 자유로운 토론방식을 통해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와 성적 지식, 출산 영상, 피임법, 성관계 체위 등을 연령대에 따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교육한다. 독일 성교육의 우선 목표는 성범죄의 예방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자기 결정권이다. 가장 오래전인 1944년부터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인 스웨덴은 기존에 지향했던 남녀평등의 단계를 뛰어넘어 성적 정체성, 종교, 인종, 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확대된 개념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걸쳐 각 과목의 교사가 해당 주제에 맞게 성지식 및 젠더 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 또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 대중적 광고 안에 표현된 젠더와 성 이미지를 분석하게 하고 토론을 통해 미에 대한 과장,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식이다. 미국도 포괄적 성교육이 기본이며, 인간의 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성적 태도를 묻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통하여 인간관계 기술을 형성하고 성적 인간관계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교육한다(조현아 외 4인, 2019, 239-256). 한국 역시 사회와 문화의 차원에서 성을 바라보도록 하는 영역이 공적 성교육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청소년 성교육과 비교해볼 때 그 분량이나 내용이 아직도 부족함이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해외에서도 자녀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결정권이 성행위, 임신과 임신중단, 피임, 성병 예방 등 의학적이고 생물학적 성지식 교육 부분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하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의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의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Ⅲ. 여성신학 성윤리와 성교육 커리큘럼

1. 여성신학 성윤리

여성신학 성윤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성신학자들이 탐구해왔다. 연구자는 이를 1)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로써의 통전적 성, 2)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3)전 지구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신학에서는 전통적 신학의 몸과 성 이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며, 이원론은 몸과 성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 이해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손승희 외 9인, 2001, 21). 그리고 여성과 몸, 물질, 죄악을 연장선에 놓는 이원론이 인간에게서 몸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관계성이나 영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며, 몸과 성은 인간 실존의 구체적인 차원이고 인간의 성은 인간의 감각 전체를 가지고 있는 몸 자체라고 본다. 생식능력에 중점을 두는 성 이해는 생식기 결합과 재생산에만 관심을 두어 오히려 인간의 몸과 성을 타자화시키는 동시에 성행위와 인격을 분리하는 부분적 이해였다는 것이다. 히브리 신앙에 나타난 인간의 몸은 정신과 육체를 이분화하는 것이 아니며 성 역시 생식기능에 국한되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차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인간의 몸과 성은 인간 존재의 기반이며, 분리될 수 없는 통전적인 것이다(Mcfague, 1993; Raphael, 1996).

두 번째로 여성신학에서 보는 몸과 성은 인간이 다른 이 및 사회와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경험과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Wendel, 1995, 1-2),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성으로서의 성이다. 쉴레(Sölle, 2018)는 성이란 몸의 감각 전체이므로 자연스럽게 타인과 연결되는 것이고, 여러 신체적인 경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성의 터전이라고 파악한다. 넬슨(Nelson, 1992) 역시 기독교 구원은 성적

인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행위 중심적인 기독교 성윤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관계성 안에서 파악되는 성은 인간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지음 받은 존재이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호성, 동등성,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연대적인 관계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본다.

인간의 성적 쾌락과 욕망을 좌악시하던 기독교 일부 전통과는 달리 여성 신학에서는 성행위의 경계선이 결혼 관계나 재생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상호 보살핌과 존중, 그리고 책임감이 바탕이 되는 상호적 쾌락인 것이냐에 더욱 중점을 둔다(Gudorf, 1994, 116-139). 이때 인간의 성은 타인을 성적 매력이나 재생산 가치로만 평가하거나 개인의 말초적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헌신을 하며 이루어나가는 온전한 통합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상호연대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은 관계를 단정시키고 인격을 분열 및 왜곡시킨다(Fischer, 1990, 75-76). 류터(1983)는 여성주의가 이원론적 몸 이해와 성차별 구조에 대해 밝힌 것을 평가하면서도 반면 성혁명, 성해방 운동이 여성 뿐 아니라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만족할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두 인격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면에서의 일치와 통합의 경험인 성을 통해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체현할 수 있게 되는 영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여성주의는 성의 자유와 사회 구조 안에서의 권력관계를 밝히고 해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즉 여성신학에서 보는 성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 머무르거나 사회의 권력 구조의 재구성과 해체에 관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을 온전한 전 인격으로서, 통전적인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로서의

성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통전적 성과 상호연대성을 확보한 인간의 성은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 공동체에 이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성은 몸을 통한 모든 경험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백은미, 2014, 94-97). 이와 같은 성은 인간이 삶의 영역 안에서 이해와 일치 가능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우선적인 것은 인간 공동체이다. 자신의 몸과 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통전적 성을 구성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어떤 착취나 억압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경우, 그의 삶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요나 왜곡 없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다른 이를 그렇게 받아들여 본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잔인하거나 무감각해질 수 있을까?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세간의 말이 품고 있는 진리를 여성신학에서는 주목한다. 쥘레(2018, 244)는 이를 ‘포괄적 공동체성’이라고 하며, 개인이 자기방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연계 되는 경험은 이후 더욱 확장되면서 그 외의 타인들에 관심하게 되고, 나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해방과 정의를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인간의 성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인간의 육체와 실제 삶 안으로 들어오는 ‘성사적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포괄적 공동체성은 인간, 자연, 모든 피조물의 유기체적 생명망을 인식하고 모든 지구 위의 존재들이 사랑과 정의의 관계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확장된다(Mcfague, 1993). 자신의 성과 몸을 긍정하며 통전적인 몸과 성 개념을 구축한 개인이 다른 이와 의 상호연대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관심을 모든 인류 뿐 아니라 지구의 피조물 전체에까지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몸의 감각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물과의 교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질레(2018)는 원초적 연대감의 회복이라고 하였다. 몸과 성을 통해 다른 인간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대화를 하며 ‘만물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레가 보는 몸과 성이란 보다 큰 공동체와의 근본적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이다. 즉 몸과 성에 대한 긍정은 곧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몸과 성이 터전이 되어 만나게 되는 전 지구 생태에 대한 긍정적 관심,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이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세계와의 깊고 친밀한 연대감을 회복하는 영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몸과 성 개념은 현대 사회의 사적인 성,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 금융주의적인 성, 권력관계 안에서의 성 개념이 갖지 못한 비전을 제시해주며, 몸과 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2.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성교육 커리큘럼

연구자는 여성신학자로서 청소년 성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 성교육에서 관심하거나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부분인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적 결정권,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 해부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지식 등을 제외하고, 전술한 세 가지의 성 개념- 통전적 성, 상호연대적 관계성으로서의 성, 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을 위주로 제안하고자 한다. 세 영역의 성 개념을 위한 성교육을 각각 3개의 과정으로 총 9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 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육체와 정신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는 소비자본주의가 좋아하는 상품 중 하나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져있다. 이때 육체는 물질로서만 취급받고 관심 받는다. 통전적 몸으로서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몸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관계 안에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슈스터만(Shusterman, 2013, 10, 35)은 인간의 몸은 단지 물질로 된 육체가 아니며, 내면의 경험적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실체라고 하였으며, 한나(Hanna, 1970)도 몸은 우리가 보통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감정·지성·의지·기억·영성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과정이자 그 결과물들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몸에 대한 인식, 살아 있는 실체이자 나의 내면과 결합되어 있는 몸을 인식하는 것은 성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성교육은 인격적 몸과 성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 학습자가 자신의 몸의 감각을 깊이 있게 살피며 자신의 살아있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몸과 몸의 감각인 성에 대해 감사와 경외를 느끼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면이 있다. 몸을 물질인 육체로만 인식하는 기존의 이원론적인 이해는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습자는 인간은 자신의 통전적인 생명으로서의 몸과 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호흡하기이다. 많은 명상전통에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호흡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외부의 여러 가지 일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과 생각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이다. 권용근(2018)은 인간의 생명과 호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마음과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호흡을 통해 통전적 몸 이해 안에서 새로운 영성훈련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학습자는 자신의 몸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우고, 일상 속에서 늘 하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손가락을 코 아래에, 심장 조금 위 가슴 부위에, 배에, 무릎 순서대로 옮겨가며 조용히 자신의 호흡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가장 호흡을 잘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을 찾아 호흡의 맞을 선택한 후 그 곳의 호흡에 집중하며 호흡한다

(Greenland, 2016, 122-123).

기독교 전통 안에서 호흡을 통한 영성수련 방법으로는 예수 기도가 있으며, 해리스(Harris, 1989, 116-117) 역시 깊고 규칙적으로 호흡하며 명상적인 기도를 하는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는 호흡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게 몸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살아가는 터전인 몸과 몸의 감각”등 짧고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몸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된다. 고요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호흡에 집중하며 되풀이하는 몸과 몸의 감각에 대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학습자는 몸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서의 선물이자 삶의 경험의 직접적인 터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로는 여성주의 기독교교육에서 주요하게 쓰이는 내러티브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그동안 물질로서의 육체로서만 몸을 취급했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각종 미디어에서 나타난 몸, 몸과 정신에 대한 이론론적인 이해 등을 분석할 수도 있고, 몸과 성을 억압받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들을 나눌 수도 있다. 내러티브 방법은 억압된 여성의 경험을 세대와 이념을 넘어 서로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현실을 표현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을 가지므로(Moore, 1991, 131),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했던 여성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많이 쓰여 왔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다. 파울러(Fowler, 1981, 151-173)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자의 기대나 판단을 따르고자 하는 단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적인 관점을 구성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오던 공동체의 신념이나 가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답변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성해 나갈 권리를 가진다. 지금의 한국 사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얼마

나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질문을 통해 신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여성주의 기독교교육에서 교육의 주체는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이며, 교사의 역할은 지식 형성의 주체인 학습자의 창조적 사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이끌어내는 산파이자 목소리 코치이다(Gill-Austern, 1999).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논쟁이 일어나더라도 청소년들은 개인의 경험 이야기하기와 다른 이의 이야기 듣기, 이야기 연결하기, 미디어 비판하기 등을 통해 개인의 주체적 성찰의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헤스(Hess, 1997, 183-187)는 거친 논쟁이나 공손하지만 피상적인 대화를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대화와 깊은 관계 속에서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직시하고 같이 진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 교사는 열린 분위기에서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격려해야 한다.

통전적 성 개념을 위한 마지막 교육과정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형태 만들어보기이다. 해리스(1987, 46-59)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들을 제안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표현해볼 수 있다.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존의 문화적 전제 속에 파묻혀 있던 질문들을 발굴해내고,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손과 눈, 온 몸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학습자는 그동안 배운 통전성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진흙으로 타원형의 길쭉한 형태를 만들며 왜 자신이 이런 형태로 스스로를 표현했는지를 공동체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잡지나 인터넷 등에서 찾은 여러 조각들로 어떤 형태를 구성하면서 왜 눈 부분이 이렇게 큰지, 어두운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머릿속에 늘 자리잡고 있는 이 단어들은 왜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여러 도구를 이용해 몸과 마음을 담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새롭게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성찰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를 만들어 낸 학습자와 이를 감상하고 질문하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 형태의 의미는 형성된다(Grumet, 1988, 80-81). 리틀 역시 이를 간접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예술품을 교육의 장에 배치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통한 교육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Little, 1988, 130). 충분한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예술적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개인의 앎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2) 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 바람 보내기

호흡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몸의 통전성을 느껴 본 학습자들은 상호연대적인 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첫 번째로 다른 이의 호흡을 느끼며 그의 생명을 실감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문화는 누군가를 대상화, 수단화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다. 연구자가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 성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결여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의 뿌리 깊은 죄악이었으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몸과 성, 인격을 억압하고 착취하도록 만들어왔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라면서 누군가를 희화화하거나, 무작정 공격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들에 둘러싸여 있다. 게임에서는 서로 상대의 캐릭터들을 죽이고, 미디어에서는 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연예인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인간 형태의 섹스돌(리얼돌)이 그저 성기구일 뿐이라고 판매를 허용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타인을 존중하라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보다 본질적인 접근,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짝을 지어 상대방의 등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고

고요한 가운데 상대방의 호흡에 따라 오르내리는 몸의 감각을 진지하게 느껴보라고 요청받는다. 타인의 호흡을 깊이 느끼며 학습자는 그가 지금 자신과 마찬가지로 살아있음을,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여성신학에서는 성을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인간의 통전성을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성의 회복은 곧 인간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한국여성신학회, 2001, 49). 타인의 몸과 성이 곧 그 사람의 인격적 생명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연구자가 주장하는 청소년 성교육의 가장 빠른 문제해결책이자 성서적인 접근이다.

두 번째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구성한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문화의 여러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프레이리(Freire, 2006, 36)에 의해 제시된 의식화 방법이 주요하게 사용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와 사회적 강요,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성문화와 성별 고정관념, 인간을 도구화 및 대상화하는 각종 콘텐츠들 등 우리 삶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미디어를 읽고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다. 일방적 지식의 흡수만을 강요하는 교육은 일종의 폭력이며 현재의 부조리함의 재생산만을 가져온다. 러셀(Russel, 1979, 145-147)은 교육이 구원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과 교사가 모두 질문 속에서 살고 질문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부정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청소년들 역시 이 사회와 문화의 모순과 억압 안에서 고통 받는 동시에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도 모르게 재생산과 확대의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의식화 과정 안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과 현대 사회가 진리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의식 고양의 이루어지며,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한 행동을 결단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여 지금의 잘못된 힘과 구조에 저항하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혁을 서서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아래 선한 행위를 창조하는 상호연대성을 느끼는 교육과정으로 초청받는다. 우선 몇 명이 같이 짝을 지어 호흡을 통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바람개비를 같이 돌려보며 협응력을 배운다. 그 후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복한 상상, 미소 짓고 웃는 상상을 한 후 호흡을 통해 따뜻하고 즐거운 마음이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교사의 인도에 따라 몸에 가득 찬 느낌 즉 선한 소망이 바람처럼 점점 커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자신 안에서 커진 선한 마음을 바람으로 세상으로 보낸다. 다 같이 한 방향을 향해 손을 뻗어 선한 바람을 세상으로 보내며 호흡하는 이 과정은 고전적 명상 규범의 핵심 요소인 ‘자애수련’(loving-kindness practices)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이에 대한 깊은 감사와 공감,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Greenland, 2019, 133, 138-139). 자신을 제외한 다른 이도 몸과 마음 안에 성과 생명을 가진 존재이며, 이 존재들을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억압하고 부정의하게 다루어왔는지를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합쳐서 선한 바람을 만들어 보내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학습자들은 공동체 안의 갈등과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전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참여를 꿈꾸게 된다.

3) 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이다. 그런데 그동안 자연과 지구는 근대의 이성중심주의 시대와 함께 죽은 물질, 인간이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피지배대상, 거대한 공장, 일정한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장치나 잘 맞는 시계에 불과하였다(Heidegger, 1995, 31).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삶의 형태와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현상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전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교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충분하지 않다. 연구자는 이 교육과정에서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동료 피조물로서의 자연과 모든 생물들, 지구에 대한 감사와 경외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한다.

우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생명체들에 대해 새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쫓불을 키고 불의 움직임을 보거나, 모래 위를 걸어 보거나, 잎사귀를 관찰하는 과정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들을 새롭게 신중하게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건포도 한 알을 신중하게 먹으면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우리의 손과 입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서로 나누어보는 것도 좋다. 류터(2006, 315)는 이처럼 자연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일컬어 “지구와 다시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짝을 지어 학습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새롭게 보게 된 자연물들의 사진을 찍어 서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하수구의 담배꽂초들 사이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생명에 대한 경외와 인간의 어리석음의 대비를 느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전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 경작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의 교육은 세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세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다양한 현장 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 경작과 농산물을 거두고 나누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교육적이며,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가드닝 수업이 교양필수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다(김오경·김태진·김학범, 2011). 같이 작물을 키우면서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건물에 공간이 없다면 수경 작물이나 화분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화된 사회에서 자연의 고마움을 너무나 많이 잃어왔다. 지나치게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마트의 포장된 식자재에만 익숙해져 있으며,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실종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고기와 야채들이 실제로 어떤 노력에 의해 자라나고 수확되는지 알지 못하는 인간은 다른 생명들의 존귀함을 알고 존중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린지(Linzey, 2014, 7)는 동물에 대한 학대와 약한 사람들에 대한 학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물건이나 학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의 첫 번째 걸음이다.

두 번째는 지구의 신음을 들으며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새로운 행위 양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포스터(Foster, 2012, 173)는 자본주의의 성장 지상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구는 파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와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생태혁명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으로 형성된 공동체, 문화, 경제를 변혁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 인간으로서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지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교사와 함께 지구 생태 위기에 관한 여러 동영상들을 보고, 그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 안에서 이와 관계된 행동 목록들을 뽑아본다. 물을 틀어놓고 칫솔질을 하고, 전기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전자제품의 교체가 유행 때문에 일어나고, 오래 입지 않은 옷을 버리고, 다 쓰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고 새로 구입한다. 학습공동체는 자신들이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행위들이 어떻게 지구 및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함께 모든 생태를 포함한 세계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리스(1989, 45)는 서로 다른 형식의 두 세계지도를 보며 세계 공동

체로서의 인식을 느끼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를 인간의 지도와 생태 지도 두 가지로 보는 교육과정을 제안함으로써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전 생태계로 시야를 확장시키도록 돕고자 한다. 인간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의 자연 및 생태 수준은 어떠한가? 왜 부유하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의 생태 수준이 오히려 빈곤한 국가의 생태 수준보다 높은가? 우리가 배출하는 수많은 쓰레기들과 폐전자제품들은 왜 빈곤한 국가로 수출되어 그들의 토양을 오염시켜야 하는가? 부유한 국가의 하나인 한국에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과 동료 인류에게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가? 등을 나눈 뒤 신음하는 지구와 동료 인간들을 생각하며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새롭게 수정할 행동들을 적어서 목걸이로 만들어 서로의 목에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지구적 영성을 위한 마지막 교육과정은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을 위해 드리는 혹은 함께 하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같이 낭송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구 전체 생태계를 위한 기도 혹은 그들과 같이 하는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나누며 다함께 기도한다. 생명의 경축과 생명의 경외는 많은 종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이의 우주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Harris, 1989, 39) '경외'는 인간인 우리 자신보다 더욱 크고 신비한 어떤 힘이 우주에서 작용하며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과 우리 역시 그 선물을 값없이 받는 자로서 모든 존재와 함께 이를 공동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Linzey, 2014, 52). 이처럼 모든 생명을 경외하고 경축하는 교육과정, 전 지구적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자는 동료 피조물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과 나눔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해리스(1989, 115)는 기도의 형태들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전통, 신의 축복을 위해 해와 달에게 비는 시편, 북아

메리카 원주민들이 풀잎에게 바치는 말들도 사례로 들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을 피지배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동료로 여기는 전통은 성 프란체스코나 힐데가르트와 같은 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모든 자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구 생태계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잊고 있는 생태적 영성을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지금의 청소년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생태문제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감수성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독교교육은 지금이라도 인간 중심적 가르침에 더하여 모든 자연 세계에 대한 겸손함과 경외의 감수성을 회복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 동물을 위한 기도, 식물과 함께 하는 기도, 지구 전체에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는 기도문을 작성하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을 되살리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통전적인 몸과 성에 대한 감사, 동료 인간에 대한 상호연대적 존중, 지구 전체의 동료로 살아가는 영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나가는 말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은 근대 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함께 사회 형성 및 제어기제로써, 여성주의 성윤리는 그 이후 나타난 성해방 운동의 담론 중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을 각각 역사적으로 담당하였다. 이 두 갈래의 성윤리와 성교육은 개신교 사회 운동과 공적 성교육으로 확장되어 우리 사회 청소년 성교육을 양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청소년성문화의 왜곡과 일탈은 너무나 심한 이유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원론적인 몸과 성 이해에 기반을 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도구화가 기본이 되어버린 현재의 우리 문화 그 자체라고 지

적하였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상호연대적 관계성의 파괴는 교육의 일부분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이 쌓아 온 오랜 죄의 결과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재의 문화에 대한 거대한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청소년성 교육을 위해 통전적 성과 몸 개념을 회복하고, 이를 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상호연대적 성으로 확장한 후 전 지구적 관심을 가지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 및 제안하였다.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속 연구와 제언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구완서 (2000). 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고찰. 한국 전문대학 기독교교육학회 논문집 (pp.124-249).
- [Goo, Y. S. (2003). Christian ethical study on sexuality.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at Junior Colleges]
- 권용근 (2018). 영성훈련에 있어 몸(호흡) 사용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50, 129-159.
- [Kwon, Y. K. (2018). A study on use of body (Breath) in Spiritual training. *Theology and Ministry* 50, 129-159.]
- 권혁위 (2020).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관계**. 서울: 지식과 감정.
- [Kwon, H. W. (2020). *Happy coupl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bible*. Seoul: Knowledge and Emotions.]
- 김오경·김태진·김학범 (2011). 국내 가드닝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 37-47.
- [Kim, O. K., & Kim, T. J., & Kim, H. B. (2011).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gardening educ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Forest Recreation Society*, 15, 37-47]
- 김지연 (2020a). **너는 내 것이다**. 서울: 두란노.
- [Kim, J. Y. (2020). *You are mine*. Seoul: Duranno]
- 김지연 (2020b). **나의 어여쁜 자야**. 서울: 두란노.
- [Kim, J. Y. (2020). *My Beautiful Woman*. Seoul: Duranno]
- 김지학 (2018). 해외 성교육 사례와 학교 성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보건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pp.55-62).
- [Kim, J. H. (2018). Cases of overseas sex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chool sex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for Health Education Summer Conference Materials (pp.55-62).]
- 김현미 (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13, 123-157.

- [Kim, H. M. (1997). A search for feminist sex education. *Korean Women's Studies*, 13, 123-157.]
-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2019).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주의.
- [National Coalition Against Homosexuality and the same-sex marriage (2019). Genderism permeates school education.]
- 백은미 (2014). **여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Baek, E. M. (2014). *Women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변우진 (2017). 학교 성교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고찰. **성경과 신학**, 81, 1-30.
- [Byun, W. J. (2017). Christian pedagogical considerations on school sex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81, 1-30.]
- 손승희 외 9인(편) (2001). **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on, S. H et al. 9 (ed.) (2001). *Gender and feminism*. Seoul: Korean Christian Book Society.]
- 오광철 (2011). 영성과 성의 통합, 유심론과 성차별주의의 이원론을 넘어. **신학과 선교**, 39, 39-62.
- [Oh, K. C. (2011). Integration of spirituality and sexuality, beyond the dualism of spiritualism and sexism. *Theology and Mission*, 39, 39-62.]
- 이나영 (2009).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경제와 사회**, 82, 10-37.
- [Lee, N. Y. (2009). Radical feminism and sexuality. *Economics and Society*, 82, 10-37.]
- 이명선 외 4인 (2012).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 105-117.
- [Lee, M. S. et al. 4 (ed) (2012).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Youth Sexuality Culture Center> and improvement plans. *Youth facility environment* 10, 105-117.]
- 이진아 (2019).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서울: 두란노.
- [Lee, J. A. (2019). *Biblical Sex Education for Teenagers*. Seoul: Duranno.]

- 이은혜 (2019. 12. 19). [성교육 전쟁①] '조직적 항의 폭탄' 반동성에 진영 타깃 된 '청소년성문화센터'. 뉴스앤조이,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6072>, 추출일: 2020.3. 5.
- [Lee, E. H. (2019. 12. 19). [Sex Education War ①] 'Organized protest bomb', 'Youth Sex Culture Center' targeted by the anti-homosexual camp. News & Joy]
- 임보혁 (2020. 2. 11). 편향 왜곡된 성교육 실체 밝힌다- '젠더정책의 실체' 포럼 열려.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87199>, 추출일: 2020. 5. 3.
- [Lim, B. H. (2020. 2. 11). Unveiling the reality of biased and distorted sex education- 'The reality of gender policy' forum opened. Kookmin Ilbo]
- 임희숙 (2017). **교회와 섹슈얼리티**. 서울: 동연.
- [Lim, H. S. (2017). *Church and sexuality*. Seoul: Dongyeon.]
- 장필화·변규용 (1989). 성에 관련한 여성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 5. 49-79.
- [Jang, P. H., & Byun, G. Y. (1989). Understanding and problems of women's liberation theory related to sex. *Korean Women's Studies*, 5. 49-79.]
- 정혜민 (2019). **토닥토닥성교육**. 서울: 토기장이.
- [Jeong, H. M. (2019). *Pat pat sex education*. Seoul: Pottery.]
- 조유미 (2020. 4. 9). 나이가 무기... n번방의 '열두살 운영자' 어찌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00297.html, 추출일: 2020. 5. 15.
- [Jo, Y. M. (2020. 4. 9). Age is a weapon... What about the 'twelve-year-old operator' of room n?. Chosun Ilbo]
- 조현아 외 4인(편) (2019). **성교육 색다르게 스마트하게**. 경기: 높은산.
- [Cho, H. A., et al 4 (ed.) (2019). *Sex education in a different and smart way*. Kyounggi: Highmountain.]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8. 24), 교육부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회 및 성명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www.>

ahacenter.kr/ data/publication/27624, 추출일: 2020. 5. 4

[Korea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2015. 8. 24). Press conference and statement for the withdrawal of the national level school sex education standar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ha Seoul Youth Sexuality Cent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여성가족부.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2017). *Youth sexuality culture center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ruess, C. E., & Greenberg, J. S. (2011). **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조아미·박선영·유우경 역. 서울: 학지사.

[Bruess, C. E., & Greenberg, J. S. (2011). *Sexuality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 (Cho. A. M., Park. S. Y., Yoo. W. K. Trans). Seoul: Hakjisa.]

Crabb, L. (2014). **에덴 남녀**.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Crabb, L. (2014). *Fully Alive: A Biblical Vision of Gender That Frees Men and Women to Live Beyond Stereotypes*. (Yoon. C. S. Trans). Seoul: blessed person Press.]

Firestone, S. (2016). **성의 변증법**. 김민예숙·유숙열 역. 서울: 꾸리에. (원저 1970 출판)

[Firestone, S. (2016). *Dialectic of gender*. Translated by Kim Min Ye-sook and Yoo Sook-yeol. Seoul: Kuri.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70)]

Fischer, K. (1990). *Reclaiming the connections: a contemporary spirituality*. MP: Sheed & Ward.

Foster, J. B., & Magdoss, F. (2012).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황정규 역. 서울: 삼화.

[Foster, J. B., & Magdoss, F. (2012). *Everything an environmentalist needs to*

- know about capitalism*. Translated by Jeonggyu Hwang. Seoul: Samhwa.]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tprt & Row.
- Freire, P. (2002).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 Gill-Austern, B. L. (1999). *Pedagogy under the influence of feminist and womanism. Feminist & Womanist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 Greenland, S. K. (2018). **마음챙김놀이**. 이재석 역. 서울: 불광출판사.
[Greenland, S. K. (2018). *Mindfulness play*. Translated by Jae-Seok Lee. Seoul: Bulgwang Publishing House.]
- Grenz, S. (2003). **성윤리학**. 남정우 역. 서울: 살림.
[Grenz, S. (2003). *Sexual ethics*. Translated by Jungwoo Nam. Seo-eul: Salim.]
- Grumet, M. R. (1988). *Bitter milk: Women and teaching*.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Gudorf, C. E. (1994). *Body, sex, and pleasure*. Cleveland: Pilgrim Press.
- Hanna, T. (1985). *Bodies in revolt: A primer in somatic thinking*. Novato: Freeperson Press.
- Harris, M. (1987). *Teaching and religious imagination*.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 Harris, M. (1989). **교육목회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Harris, M. (1989). *Education ministry curriculum*. Translated by Yongsoo Go, Seoul: Presbyterian Church Korea Press.]
- Heidegger, M. (1995). **에코필로소피: 생태 환경의 위기와 철학의 책임**. 구승희 역. 서울: 새길.
[Heidegger, M. (1995). *Ecophilosophy: The crisi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responsibility of philosophy*. Translated by Seung-Hye Ku. Seoul: Saegil.]
- Hess, K. (1987). *Caretakers of our common house: Women's development on*

- communities of faith*. Nashville: Abingdon Press.
- Hooks, B. (2000).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Cambridge, MA: South End Press.
- Little, S. (1988). **기독교교육 교수방법론**.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Little, S. (1988). *Christian education teaching methodology*. Translated by Samija. Seoul: Presbyterian Church Korea Publishing House. Mafague, S. (1993). *The bod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 Moore, M. E. (1991). *Teaching from the heart*. Minneapolis: Fortress Press.
- Nelson, J. B. (1992). *Body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 Percy, A. (2011). **쉽게 쓴 몸의 신학**. 김한수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Percy, A. (2011). *The theology of the body made simple*. Translated by Hansoo Kim. Seoul: Catholic University Press.]
- Raphael, M. (1996). *Theology and embodiment*.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 Ruether, R. R. (1983). **여성해방과 성의 혁명**. 최광복 역. 서울: 일월서각.
[Ruether, R. R. (1983). *Women's liberation and the sexual revolution*. Translated by Kwangbok Choi. Seoul: Ilwol Seogak.]
- Ruether, R. R. (2006). **가이아와 하느님**. 전현식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Ruether, R. R. (2006). *Gaia and God*. Translated by Hyunsik Je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Russel, L. M. (1979). *The future of partnership*.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SIECUS Position Statements, <http://www.siecus.org>.
- Sölle, D. S. (2018). **사랑과 노동**. 박경미 역. 서울: 분도출판사 (원저 1984 출판)
[Sölle, D. S. (2018). *Lieben und arbeiten: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Translated by Kyungmi Park. Seoul: Bundo Publishing Hous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4)]
- Shusterman, R. (2013). **몸의 미학**. 이혜진 역. 서울: 북코리아.

[Shusterman, R. (2013). *Body aesthetics*. Translated by Hyejin Lee. Seoul: Book Korea.]

Wendel, E. M. (1995). *I am my body*. New york: Continuum.

Abstract

**Searching for a Curriculum to Reconceptualize
Sexuality for Youth Sex Education :
Nth Room Era, New Talk of ‘Body’ and ‘Sex’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oint of View**

Jooah Lee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differences in views and various controversies surrounding Korean youth sexuality education in the wake of the Nth Room incident, which had a great impact on modern Korean society. Sex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public sex education through school sex education and the Youth Sexuality Center, and conservative/traditional Protestant sex education. Public sex education is partly influenced by feminist sexual ethics and comprehensive sex education abroad. Based on gender sensitivity an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four major projects ar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prostitution,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 school sex education standard was criticized for stereotypes of gender roles and gender-discriminatory content, reinforced distorted myths about sexual violence, and exclusion of sexual diversity and various family types. Conservative/traditional Protestantism is based on the normal family ideology such as bisexual marriage, premarital chastity, and sexual ethics recognized only within marital relationships. It is a form of confrontation with public sex education while strongly opposing it. The researcher firs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x education, conservative/traditional Protestant sexual ethics and sex education, feminist sex ethics and sex education, and overseas youth sex education, respectively,

while composing the curriculum for Korean youth sexuality education. And as a more fundamental solution to youth sexuality education, I pointed out that there are limits to asceticism, premarital chastity, gender sensitivity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education, and found an alternative to the concept of body and sex in feminist theology.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ceptualize the body and sex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most fundamental cause of distorted sexual culture is dualistic sex and understanding the body, centering on the research of various feminist theologians. And this was conceptualized into three concepts: holistic sexuality, mutual solidarity understood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exuality as a spirituality that extends to the global community. And with each curriculum, 1) Holistic Sexuality: Breathing, Narrative, Making the Shape of One's Body and Mind 2) mutual solidarity : Feeling the Breath of Others, Media Literacy through Conscientization, Sending a Good Wind 3) Sexuality as a spirituality that extends to global concern: It was proposed to pay attention to nature and to co-cultivate it, to listen to the earth's moans and create a new way of life, and to write a prayer with the earth and fellow living beings.

《 **Keywords** 》

Youth sexuality education, holistic sexuality, sexual ethics in Feminist theology, mutual solidarity, ecological spirituality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